



당을 따라 민족과 더불어 40년, 미래를 향한 도약

- 《결림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아

1985년 4월 1일 창간 이래 《결림신문》은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지도 아래 40년이라는 비범한 발전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중요한 조선말 여론진지로서 《결림신문》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민족정책을 깊이있게 관찰하며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족 지역 언론사업 발전의 장엄한 장을 써내려왔습니다.

1. 당의 령도를 견지하며 여론 진지를 굳건히

성당위와 성정부의 확고한 지도 아래 《결림신문》은 언제나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1985년 창간의 첫 삽을 뜨던 그날부

터 오늘까지, 《결림신문》 전·현직 임직원들은 당과 정부, 그리고 민족의 목소리를 지키고 시대의 흐름을 기록하며 한걸음 한걸음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후, 신문사는 선전 업무와 민족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문술을 깊이 학습 관찰하며 중화민족공동체식의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일련의 기획보도를 통해 당의 민족정책이 결림 대지에서 거둔 성공적인 실천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2. 40년의 령정, 민족과 함께 한 빛나는 발자취

창간호가 세상에 나온 이래 《결림신문》은 중국 조선족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길에서 장춘

으로 사옥을 이전하고 연판인쇄에서 옵셋인쇄로의 기술혁신을 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 결림신문》 개통과 모바일 신문 도입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연변 25시', '창업취업', '인성교육', '동북저널' 등 부간을 통해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꽃피웠으며 '온·오프라인 융합'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문화를 말하다', '중국조선족 백년 백인' 등 대형 기획보도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겼으며 '페스카마호 사건', '장춘공항 벌금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 공정한 보도로 사회적 화합을 이끌었습니다. 2012년 한국지사 설립과 《해외판》 발행은 글로벌 시대 조선족의 련결고리가 되었으며 중국 신문상 8회 수상은 우리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민족을 위한, 민족에 의한' 언론으로서 독자와 호흡하며 위기와 변화를 넘어선 것은 수많은 동료들의 열정과 독자 여러분의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3. 미래를 향한 다짐: 혁신·통합·공감의 길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도래한 오늘, 《결림신문》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조문넷(朝聞網), 위챗계정 '조문투데이(朝聞今日)'와 위챗, 틱톡 영상 플랫폼 등 미

디어 매트릭스(矩阵)를 확장해 Z세대와 글로벌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민족문화 계승과 창조적 변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수정(守正)과 혁신을 견지하여 전통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지사와 《해외판》을 거점으로 중한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언론사적 책임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습니다. 기층에 눈길을 돌려 소외된 목소리를 발굴하고 교육·복지·환경 문제에 적극 참여하며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4.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꿈

《결림신문》은 중화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모든 이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결림신문》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창간 40주년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혹의 나이에 들어선 《결림신문》은 변함없이 '백성중심, 백성참여, 백성봉사'라는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편달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됩니다.

결림신문사
2025년 4월 1일

축복합니다 영광의 40 성상... 기원합니다 더욱 밝은 미래를

- 결림신문사 임직원들의 축복 메시지

■ 유창진

40년간의 신뢰를 발판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 소중함을 기록하며 굳건한 사명감으로 국가와 독자에 헌신하겠습니다. 사회의 눈과 귀로서 성찰과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 최승호

정도를 지키며 혁신을 거듭해온 40년 영광의 길이 자랑스럽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변함없는 초심으로 당보와 민족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 권웅

40년간 앞을 향해 달려면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자의 기상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안상근

《결림신문》의 40년과 함께해서 행운스럽고 신문 역사의 견증인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영광의 40년'이 소중한 추억과 힘찬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 최하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책임과 영예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자랑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 유경봉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지켜온 40년, 나라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독자를 위한 40년이었습니다. 융합과 혁신의 물결 속에서 《결림신문》이 새로운 영광을 빛내길 기원하겠습니다.

■ 엄애란

창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결림신문》이 푸르른 소나무마냥 우뚝 서서 업계를 선도하며 독자들에게 더욱 많은 훌륭한 기사를 선물하길 기대합니다.

■ 김파

40년간 민족언론의 소임을 다해온 《결림신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통과 혁신을 융합하며 더욱 정교한 콘텐츠로 독자와 소통하겠습니다.

■ 정현관

40년의 초심을 등불로 삼아 진실을 전파했고 미래에도 바른길을 지키며 더 웅장한 청사진을 그려가길 바랍니다.

■ 김가혜

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며 독자와 소통해온 《결림신문》의 40주년을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 구천리

붓으로 시대를 기록하고 먹물로 독자들의 숨결을 담아온 40년, 앞으로

도 선도자의 기상으로 시대의 공감을 전해주길 기대합니다.

■ 김령

40년간의 풍우 속에서 필묵으로 시대의 변천을 기록해온 《결림신문》입니다. 이제 미디어 융합의 물결 속에서도 계속하여 앞장서리라 확신합니다.

■ 김명준

40년간 '글쓰기'로 문화의 땅에 뿌리내리고 자란 《결림신문》, 앞으로 다원화 전파를 통해 문화의 목소리를 더 멀리 전달하기를 기원합니다.

■ 김민

시대의 숨결을 기록해오며 독자와 함께해온 40년의 발자취가 자랑스럽습니다. 《결림신문》 창간 40주년을 축하하며 영광의 앞날을 함께 기대합니다.

■ 김성애

푸르른 청춘으로 힘차게 재출발하며 언론인의 영광과 꿈을 되새기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갈 《결림신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 김영화

독자와 함께하는 《결림신문》, 더 큰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결림신문》을 응원합니다.

■ 김정함

38년 직장 생애에 32년을 함께하는 《결림신문》,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길이 변장을 기원합니다.

■ 김춘만

늘 새로워지는 우리 신문의 발전상을 보면서 늘 긍지와 자랑스러움이 가슴속에 넘칩니다. 앞으로도 민족의 자랑찬 기치로 우뚝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김태국

《결림신문》이 계속 조선족 독자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우리글 신문으로 남아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류향희

민족문화를 지켜오고 독자와 함께 호흡하며 걸어온 40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영광을 이뤄내길 기원합니다.

■ 리미연

지혜와 열정으로 쌓아온 4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시대에도 진실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길 기원합니다.

■ 리전

앞으로도 혁신과 발전을 계속하는 《결림신문》과 함께 독자들에게 더욱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리철수

《결림신문》은 40년 동안 초심을 잊지 않고 백성의 신문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 박명화

《결림신문》은 저에게 직업의 출발점 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서와 직업적 이상이 공존하는 성소(聖所)입니다. 《결림신문》의 영원한 변명을 기원합니다.

■ 방초

《결림신문》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결림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손맹변

지나온 40년은 파도를 가르며 써내려온 휘황찬란한 역사였습니다. 앞으로 《결림신문》이 더 큰 업적을 쌓으리라 믿으면서 저는 그 영광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심영옥

40년간 당의 후설, 여론 향도의 역할을 충실히 리행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온 《결림신문》의 미래 10년, 20년... 더 먼 앞날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오건

신입 기자로서 귀한 역사를 배우는 중입니다. 창간 40주년을 맞으며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민족언론의 빛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동

독자와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시대와 함께 미래로 전진하는 《결림신문》입니다. 창간 40주년을 축하합니다.

■ 차영국

《결림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불거리와 친절한 내용으로 다가가는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